국내
마감시황

2025.8.27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주요 이벤트 앞두고 강보합 마감

이번주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PCE 발표 앞두고 관망세
한미 협력,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 등으로 조선주 상승 주도

주요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3,187.16pt (+0.25%)	801.72pt (+0.01%)	430.31pt (+0.21%)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396.40 원 (+2.8 원)	2.8380% (-2.2bp)	6,484.75pt (+0.03%)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억)	KOSDAQ (억)	KOSPI200 선물 (억)
개인	+600 억	+1,193 억	-953 억
외국인	-2,037 억	-966 억	-1,772 억
기관	+276 억	-105 억	+2,42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주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PCE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높아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에게 해고 통보를 한 탓에 연준의 독립성 침해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 중 한때 하락했던 코스피는 조선주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날 KOSPI는 0.25%, KOSDAQ은 0.01% 올랐습니다.
- 외국인은 KOSPI 현물과 선물 모두 순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운송장비·부품과 일반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와 금속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화학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HD현대·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결선 후보에 오르면서 조선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일부 반도체주가 올랐습니다. 9월 9일 애플의 아이폰17 출시가 예정인 가운데 관련 밸류체인이 부각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은행, 자동차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후퇴된 탓에 엔터와 레져 업종이 내렸습니다. 방산주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화학, 화장품, 로봇주가 내렸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HD현대미포(+14.59%), LG이노텍(+3.93%), 삼성전자(+0.43%)가 올랐고, LIG넥스원(-5.27%), 롯데케미칼(-3.37%), 에이피알(-2.88%)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